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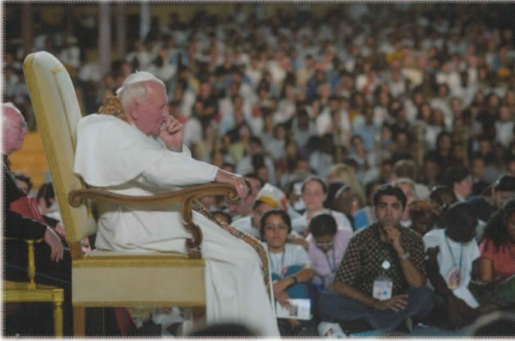
# 못자리

4월



제 1723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당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2000년 대회년을 기념하여 **로마(이탈리아)**에서  
제15차 WYD가 개최되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라는 대회 주제는  
대회년의 핵심인 구원의 역사를 청년들의 삶 안에 되새기도록 초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청년들을 '새 천년기의 파수꾼'이라고 부르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의 희망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어요.

# 오늘의 복음

##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수녀님의 주일학교 시절



Sr. 박 마리오

못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성동 성당에서 소임하고 있는 박 마리오 수녀님이에요.  
수녀님이 어릴 때는 성전 1층과 2층이  
주일학교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 많은 학생이 미사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성가를 불렀는지,  
아직도 수녀님 귓가에 그 소리가 맴도는 것 같아요.  
수녀님도 친구들과 함께 목청껏 불렀지요.  
성가를 크게 부르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히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듯하여 뿌듯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활기차게 성가를 불러보길 바라요.  
미사 시간이 더 은혜롭고 행복할 거예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의성 성당 6학년 양재민 사도 요한

제자들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모르고 무서워했던게 잘 이해가 났다  
왜냐하면 나 같았어도 예수님이 부활한지  
몰랐었으면 나도 누가 훔쳐간줄알고  
무서워했을것 같았다



★의성 성당 6학년 양재민 사도 요한

# 오늘의 복음

## 4월 12일 부활 제2주일 <요한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팡! 🥰 팡! 해외탐방!

### 🇮🇹 로마 II를 소개합니다!

1월 호에 이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2000년 대히년에는 로마에서 제15차 세계청년대회가 열렸어요.

이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WYD 십자가'와 '구원의 성모 이콘'을 세계청년대회 상징물로 제정하셨답니다. 이 상징물은 차기 대회로 전달되며 순례의 핵심이 되었어요. ^^

# 퍼즐 가로세로

나	능	하	늘	땅	신	비	선	과	악
성	삼	일	색	파	스	카	토	타	드
모	로	사	리	아	평	기	도	마	술
마	노	래	고	통	화	살	레	시	스
리	일	어	나	라	은	장	미	초	테
아	축	세	달	아	총	사	랑	성	파
막	일	상	태	갈	명	요	한	룩	노
달	말	씀	이	사	람	이	되	시	어
레	복	음	로	고	스	부	활	초	대
나	닭	가	브	리	엘	천	사	소	식

1. 예수님은 돌아가신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2.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 제자는 ○○○입니다.
3.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 ○○○○입니다.
4. 부활을 상징하며, 새로운 생명과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입니다.
5.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부활성야 미사 때 축성하여 부활시기 동안에 독서대 옆에 두는 것으로, 어둠에서 빛이 되어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것은 ○○○입니다.

# 오늘의 복음

## 4월 19일 부활 제3주일 (루카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13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29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미션 UP! UP! UP!**

친구들 안녕? 따뜻한 햇볕이 우리 친구들을 비춰주고 있는 따사로운 봄이에요^^

이번 미션은 '사순시기를 기도 안에서 잘 보내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성체조배 바치기, 십자가의 길 기도' 등을 하며 사순시기를 잘 보내기로 해요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사진을

안동 교구청 사목국 메일(Sa3119@ndtc.com)로 보내주세요~



#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고을 찾으세요.  
L S 고을 찾으세요.



# 오늘의 복음

## 4월 26일 부활 제4주일 <요한 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 구약 성경 인물 이야기

노아



(창세기 6장~9장)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느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 안에는 온갖 새와 동물 수컷과 암컷 한 쌍들과 노아의 가족이 있었는데, 사십일 동안 비가 오고 세상이 물로 가득 차 땅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숨지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물이 빠지고 하느님께서는 무지개를 표징으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창세 9,1)

인간의 죄로 인해 아파하는 자연과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아요.

# 우 리 들 이 야 기 ★



★하망동 성당 3학년 강민재 세례자 요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치라에게 들기갈 때에 뉘으로 들까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끼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 다 그러나 뉘으로 들끼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뉘 시기는 목자에게 뉘을 팔아,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 뉘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음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나들며 풀밭을 찾아 믿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 생명을 온 또 온이 보치기 하려고 왔다.”



★하망동 성당 4학년 전수민 가브리엘라



뭇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 <3주간> : 부활 제3주일

1. 오늘 복음에서 두 제자는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 ①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 ②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 주셨을 때
- ③ 예수님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 ④ 천사가 나타났을 때

2. 오늘 복음을 읽고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 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 O / X )
- ②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다. ( O / X )
- ③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 O / X )
- ④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 O / X )

### <4주간> : 부활 제4주일

1.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서 양들이 목자와 낯선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지팡이                      ② 얼굴                      ③ 옷                      ④ 목소리

2. 오늘 복음 잘 읽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나는 (                      )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                      )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당첨자

3월 8일 정답자

정답자 김주안 임시우



알림판

◆ 5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5월 24일 : 갈전 마티아 성당
- 5월 31일 : 서문동 성당

(※ 원고는 4월 7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